

## 주민건강, 반드시 우리가 지켜나간다”

울릉도내 영세민·주민 건강검사 실시, 건협 경북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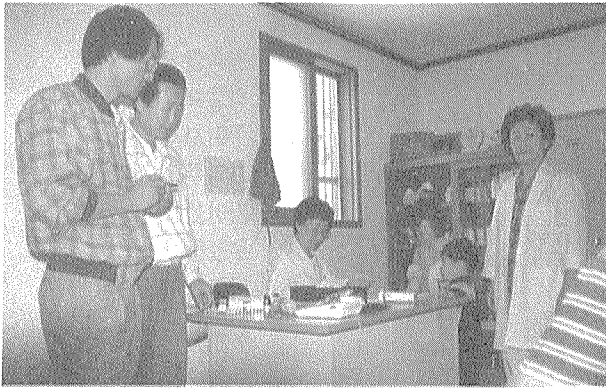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가 낙도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무료검진을 실시했다.

건협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울릉군과 협조하여 울릉군내 50~59세 영세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무료검진사업은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군내 보건지소, 진료소를 순회하면서 실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주민건강검사, 학생건강검사, 근로자 건강진단 등도 함께 실시해 모두 880여명의 울릉도민이 이 기간동안 건강검사를 받았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주민건강관리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건협 경북지부 검사팀의 마음이 울릉도를 훈훈하고 건강한 섬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번 무료검진은  
건협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으로,  
울릉군과 협조하여  
울릉군내  
영세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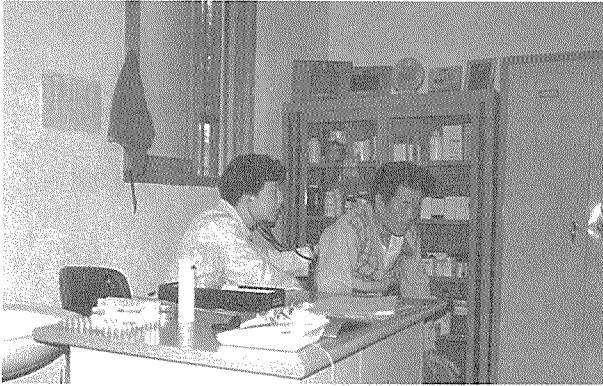
### • 이동검진버스도 울릉도행 배에 올라

9월 26일, 울릉도를 향해 떠날 배 위에 8명의 건협 경북지부 건강검사팀이 올랐다. 배 위에는, 이번 검진을 위해 동원된 경북지부의 이동건강검진버스도 자리를 잡았다.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좀 서늘하다 싶게 느껴지는 바닷바람, 그 바람에 실린 비린듯한 바다내음을 느끼며 이들은, 이번 울릉도의 건강검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저마다 마음 속으로 빌어 본다. 배가 지나간 뒤로 남은 물 위의 뱃길을 바라보면서.

### • 울릉도내 영세민 무료검사, 건협 30주년 기념사업으로

이번 검진 출장은 우선, 울릉도내 영세민 무료검진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건협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울릉군과의 협조 하에서, 울릉군내 50~59세 영세민의 건강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기로 한 것.

건협 경북지부는 군내의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순회하면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종목을 X-RAY, 소변, 간기능, 빈혈, 간염, 혈당, 심전도 검사 등을 비롯한 9개 종목. 순회검사에서 30여명의 울릉군



만족할 만한 의료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지역주민 건강관리에 기여했다는데서 무료검진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내 영세민이 건강검사를 받았다.

얼마되지 않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기는 했지만, 의료의 혜택이 만족할만큼 주어지지 않는 지역의 주민 건강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검진출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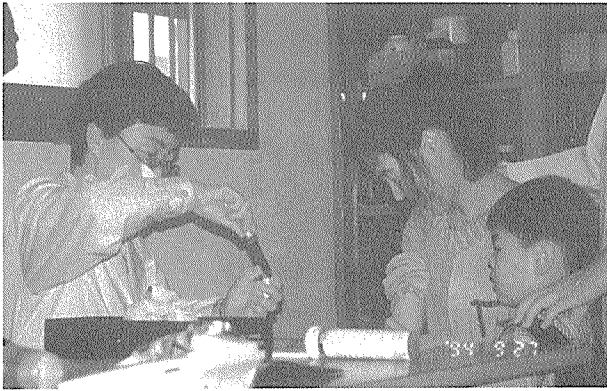
울릉군에서는 이번 무료검사를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협 경북지부에 요청하면서 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볼 것을 약속했다.

### • 주민·학생 대상 건강검사도 실시

한편 10월 1일까지 계속된 이번 검진출장에서는 주민건강검사, 학생건강검사, 근로자 건강진단 등도 병행·실시되었다.

“주민건강가꾸기사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경북 도비로 실시 되는 주민건강검사사업에서도 120여명의 울릉도민이 검사를 받았다. 검사종목은 소변·간염·간기능·빈혈·혈당·심전도 검사 등.

학생건강검사에서는 656명, 근로자 건강진단에서는 21명이 검사를 받았다.



주민 건강관리사업,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이를 통해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 주민건강관리사업,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

일주일간 울릉도에 머물면서 건협 경북지부는 880여명에 달하는 울릉도민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했다. 하루에 150명이 넘는 사람들을 검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들에게는 남다른 의지가 있다. 주민 건강관리사업,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며 이를 통해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커다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진을 모두 마치고 돌아오는 배에 오르는 검진팀의 마음은 뭔가 아쉬운듯함과 보람이 교차되어, 자꾸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곧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듯한 울릉도의 모습이 눈안 가득히 잡힌다. 그리고 보니, 그 좋다는 울릉도의 경치를 구경할 겨를도 없었던 일주일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그들은 울릉도에서 만났던 주민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에 가슴 뿌듯함을 느끼며 울릉도를 출발한다. 건강하고 더욱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㉞